

세이셸

정보수정일자: 2012. 12. 20.

작성처: 나이로비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 7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9
- 주요 산업 동향 / 10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11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1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1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16
 - 대한수입규제동향 / 17
 - 관세제도 / 18
 - 주요인증제도 / 19
 - 지적재산권 / 20
 - 통관운송 / 2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24
- 외국기업 투자동향 / 27
- 우리기업 투자동향 / 2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29
- 진출형태별 절차 / 30
- 투자입지여건 / 31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32
- 조세제도 / 3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34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35
- 물가정보 / 37
- 바이어발굴 / 38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39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40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41
- 이주정착 가이드 / 42
- 출장가이드 / 4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47
- 유관기관 웹사이트 / 48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세이셸공화국 (Republic of Seychelles)
위치	인도양 서부의 도서군도 (케냐 뽀모사에서 동쪽으로 1,593Km)
면적	455km ² (약 140만km ²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있는 115개의 섬으로 구성)
기후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로 4월이 26-31도로 가장 덥고, 7-8월이 24-29도 12월과 1월이 우기이나 강수량은 많지 않음(년간 405mm) 해양성 기후로 하루에도 날씨 변화가 있음
시차	GMT +4시간 (한국보다 5시간 느림)
도량형	미터법
수도	주도인 Mahe섬에 소재한 빅토리아 (Victoria)
인구	89,318 (*World Gazetteer, 2012년 예상치)
주요섬/도시	Mahe섬(76,776명, 빅토리아 6만명), Praslin섬(7,400명)
민족	크레올(Creole), 아프리카인, 아시안 (인도, 중국계), 유럽계
언어	영어(공용어), 크레올어(통용어), 불어
종교	기독교(82%), 영국성공회(6%), 기타(12%)
건국(독립)일	1976. 6.28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실권자)	James Michel (대통령 겸 실권자) 취임일 : 2011년 7월 (5년간, 현재 3선째)

자료: 세이셸관광청, EIU (Country Report, 2012. 4분기)

나. 경제지표 (2012년)

GDP	US\$ 10억
경제 성장률	3.5%
1인당 GDP	US\$ 10,000
실업률	n/a
물가상승률	7.2%
화폐단위	Seychelles Rupee (SRs)
환율	SRs 13.74/US\$
외채	n/a
외환보유고	US\$ 299.8백만
산업구조 (% of GDP)	제조/건설업(30%), 관광(21%), 농수산(3%), 서비스 및 기타 (46%)
교역규모 및 주요교역국	수출: US\$514.7백만(프랑스 25.7%, 영국 20.4%, 일본 10.6%, 이태리 9.7%), 네덜란드 3.0%) 수입: US\$881.5백만(사우디 35.9%, 남아공 12.6%, 스페인 12.5%, 프랑스 8.8%, 싱가포르 6.2%)
주요 교역품	○ 수출 : 캔참치(Canned Tuna , US\$215.4 백만), 기타 수산물
	○ 수입 : 기계운송장비(US\$225.2 백만), 식품 및 가축(US\$183.1 백만), 가공제품(US\$174 백만)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 4분기)

다. 한-세이셸 관계 (2012년 기준)

체결협정	없음. 1980년 한국측이 어업협정/항공협정 제외-미체결 2007년 세이셸측이 어업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제외-미체결 2009.6월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교역규모	(단위 : US\$천)		
	구분	2011	2012.11 월
	대 한국 수입 (A)	18,331 (40.3%)	25,810 (55.9%)
	대 한국 수출 (B)	855 (-71.1%)	1,828 (121.7%)
	무역수지 (A-B)	17,476	23,982
주요교역품목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율 ○ 우리나라 수출 : 아연강판 (U\$655만),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U\$660만), 발전기 (U\$552만) 등 ○ 우리나라 수입품목 : 참치 (U\$681천) 어육 (U\$550천). 등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세이셸 투자 (신고기준) : 없음 ○ 세이셸의 대 한국 투자 : 없음		
교민	5명		

자료: 한국관세청, 한국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행정부

1) 대통령

- 세이셸은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이며, 정/부통령제로 운영된다..
- 현대통령은 James Michel로 2011년 7월에 3선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 6월까지가 임기이고, 부통령은 Danny Faure이다.

2) 내각

- 행정부 내각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소국인 관계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전담 소관부처를 책임지고 있다.
- 총 18개 소관부처가 있다.

주요 분야 정부부처 및 각료장관은 다음과 같다.

- President, defence, legal affairs, information & tourism : James Michel
- Vice-president & finance, trade, public administration & ICT : Danny Faure
- Designated minister, community development, youth & sports : Vincent Meriton
- Education, employment & human resources : MacSuzy Mondon
- Foreign affairs : Jean Paul Adam
- Health : Erna Athanasius
- Home affairs, environment & transport : Joel Morgan
- Investment, natural resources & industry : Peter Sinon
- Land use & housing : Jacquelin Dugasse
- Social development & culture : Bernard Shamlaye

나. 사법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최종항소법원(Seychelles Court of Appeal)
-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Seychelles)
- 고등법원(High Court)
- 지방법원(Resident & District Magistrate's Court)

다. 의회

- 단원제이며 직선의원은 보통선거로 선출한다.
- 임기는 5년이며 직선의원 25석, 비례대표 9석 등 34석으로 구성된다.

1) 선거제도

- 세이셸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6월 대통령 선거로 현 Michel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며, 의회선거는 2012년에 실시되었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 민족당 (Parti Lepep, The People's Party)

- 전 국민진보전선 (SPPF, Seychelles People's Progressive Front)이 개칭한 현 여당으로서 2007년 총선에서 23석 (56% 득표) 확보하였으며, Michel 대통령과 Faure 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 세이셸 국민당 (SNP, Seychelles National Party)

- 2007년 총선에서 11석을 차지한 제1야당이다.

□ 민주당 (DP, Democratic Party)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석이 없는 군소 정당이다.

라. 세이셸 역사 및 주요 정치 사회 동향

□ 국가 역사

- 일찍부터 아랍, 페니키아, 인도네시아 상인들이 세이셸 군도를 방문한 것으로 여겨지나 16세기 초 포르투갈 항해사 Vasco da Gama가 방문한 것이 최초 공식 기록이다.
- 1756년 프랑스가 군도의 영유권을 선언하고 Seychelles로 개칭할 때까지는 무인도 상태였으며, 1794년 영국이 세이셸을 병합한 후, 모리셔스의 관할 하에 두고 행정경험이 있는 인도인들에게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03년 독자 식민지가 된 후 1976년 영 연방하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964 Rene의 지도하에 SPUP(The Socialist Seychelles People's United Party, 현재 SPPF) 및 Mancham 지도하에 SDP(Seychelles Democratic Party, 현재 DP)가 결성된 후 독립 요구를 제기하였다.
- 독립 후 Mancham SDP 당수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77년 Rene 당시 총리에 의해 축출되고 SPUP 주도의 일당 체제가 성립, 이후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영.불 등의 압력으로 인해 1991년 다당제 체제로 이전되었다. 이후 1993년 신헌법이 채택되고 다당제하의 첫 총선이 실시된 바, 여당인 SPPF (Seychelles People's Progressive Front)가 압승하였다.
- 2004. 4. Michel 대통령 취임
 - 77년 6월 쿠데타로 집권한 Rene 前 대통령이 2004. 4. 사임함에 따라 Michel 당시 부통령이 승계 취임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집권 중이다.

□ 정치 역사

- 77년 6월 쿠데타로 집권한 Rene 대통령은 일당제로 개헌 후 79년, 84년, 89년, 93년, 98년 선거를 통해 계속 집권해 왔으며 야당인사 숙청 및 탄압을 통해 절대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며, 2001년 조기 대통령선거(2002-2007년 임기) 실시를 통해 54%의 지지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 아울러, 2002.12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당인 세이셸 인민진보전선(SPPF: Seychelles People's Progressive Party)이 총 34석중 23석을 차지하여 다수당 위치를 유지하였다.
- 이는 90년대 초 국제적 민주화 압력에 직면하여 92년 다당제 개헌, 93년 및 98년 총선을 통해 Rene 대통령과 SPPF는 재집권에 성공 하였는바, 이는 정부에 대한 신임보다는 92/93년 중 헌법 안 채택을 포함한 4차례의 선거를 야당의 정치기반이 조성되기 전에 연속적으로 실시한 데다가 야당 집권 시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를 우려한 일반국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Rene 대통령 정부는 총선 후 비교적 성공적인 다당제 정착과 관광, 농수산, 항구시설 등 주요 분야에서의 민영화 추진 등 착실한 경제개혁을 통해 과거 독재 정당에서 민주정당으로의 이미지 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 내분에 의한 민주당(DP)의 약화 및 SNP(Seychelles National Party)의 약진
 -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DP)은 선거 후 내부 권력투쟁에 의해 94년 10월 Paul Chow 사무 총장이 사임하고 선거과정에서 빛진 부채관계로 효과적인 야당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가운데 98. 3월 총선에서 SNP가 3석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이 최대 야당으로 등장하였다.
 - DP당은 국민화해, 민주화 및 경제 자유화를 위해 정부와의 협조를 추구하는 Mancham 당수와 이에 소극적인 Daniel Bell 신임 사무총장과의 내분이 심화되었으며, 한편, SNP는 "State House 2003" 이라는 슬로건아래, 여당인 SPPF의 정책근간인 보건과 교육 문제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차기 정권 인수 의지를 높이고 있으나, 2000년 초의 개헌으로 Rene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조기총선을 실시함에 따라 집권 실패. 2002년1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34석중 11석을 차지함으로써 SPPF와 양당체제를 확립하였다.
- Michel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개혁 추진을 통해 지지기반 확대에 노력하였으나,
 - '05. 5월 집권여당인 SPPF(Seychelles People's Progressive Front) 의장으로 재선출된 Rene 前 대통령의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 경제개혁정책 등이 사회주의 성향의 SPPF 강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사회 문화동향

- 문화 관습
 - 대부분의 세이셸인들은 ① 프랑스 정착자 ② 아프리카 해방 노예 ③ 인도 노동자들의 후손, 아랍계로 구성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화가 복합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 교육
 - 6~16세까지의 의무 교육 등 정부의 강력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다(문맹률 2.7%)

교육시설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교사비율	학교수	학생:교사비율	학교수	학생:교사비율
2012	33	14:1	27	13:1	13	12:1
2011	33	13:1	27	13:1	13	12:1

자료: Seychelles in Figures 2012

○ 보건

- 정부가 총 6개 병원, 315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보건소는 18개가 존재한다.
- 개인병원은 총 14개가 존재하고 치과전문병원이 5개, 약국이 2개 존재한다.
- 정부의 예산 지출 중 보건 분야 지출이 최다 규모이다(70세 이상의 평균 수명 유지).

보건시설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정부	병원수	7	6	6
	병동수(Beds)	329	330	315
	보건소	17	18	18
민간	개인병원	9	9	14
	치과전문	5	5	5
	약국	3	3	2

자료: Seychelles in Figures 201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투자관계

우리나라와 세이셸 간의 직접투자는 아직 없다 (2012년 신고기준)

나. 현안사항

한국은 세이셸에 1980년 어업협정(안) 및 항공협정(안)을 제안하였고, 세이셸은 2007년 어업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아직 미체결된 상태이다.

다. 수입규제사례

특별한 수입규제 조치는 없다.

라 한-세이셸 외교관계

1) 주요 외교관계

- 1976.6.28.외교관계 수립(1976.7.1.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북한은 76.8.24 수교(77.5.14부터 주탄자니아대사 겸임)
- 1980.5.28.단교(한국의 10.26 사건 및 광주사태 이유)
- 1988.서울올림픽 불참
- 1995.1.29. 복교
- 1995.5.17.Paul Chow 주세이셸 한국 명예영사 임명
- 2006.12 정동창[(주)여행춘추 사장] 주한 세이셸 명예영사 임명
- 2011.10.4 김찬우 대사 세이셸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2011.9.30 Conrad Benoiton 신임 주세이셸 한국 명예영사 임명

2) 주요인사 교류

□ 방문

- 2001.10월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단장 : 신호현 대사)
- 2002.3월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권인혁 특사)
- 2002. 11월 이광재 외교부 아중동국장 방문
- 2005.5월 제9차 인도양 참치 위원회 대표단
- 2007.3월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단장 : 김항경 외교부차관)
- 2011.5월 최병국, 이범관 국회의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 (Michel 대통령 재선 축하)
- 2012.3월 제1차 한-세이셸 공동위 개최

□ 방한

- 1995.1월 Paul Chow 한국 명예영사
- 1995. 1월 세이셸 경제사절단(Benoiton SIBA 청장 등)
- 1999.10월 주한 세이셸 대사(말레이지아 상주)
- 2002. 5월 Bonnelamme 외교장관, Paul Chow 명예영사(월드컵 참관)
- 2002. 11월 Radegande 대사(말레이지아 상주,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 참석)
- 2007. 11월 Philippe Le Gall 대사(북경 상주)
- 2009. James Michel 대통령 방한
- 2012. 5월 세이셸 James Michel 대통령 방한(여수박람회 개막식 참석)
- 2012. 7월 세이셸 Jean-Paul Adam 외교장관 방한(여수박람회 국가의 날 행사 참석)

3) 경제협력관계

□ 무상원조

- 1976년 모터사이클 20대 공여
- 1978년 교육부문 협력자금 3만 달러 지원
- 1979년 아동교육부문 지원금 2.6만 달러 지원, 일반트럭 10대 및 경운기 20대공여
- 1995.1. 복교 계기 5만 달러 상당 무상원조(픽업 3대 및 임업 장비)
- 2000년 픽업 2대 공여
- 2001년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등 2만 달러 물자 공여
- 2002년 의료기기 등 약 7.7만 달러 상당 물자 및 유엔협력 관련 11만 달러 공여
- 2004년 자동차 2대 공여
- 2005년 쓰나미 피해 위로금(3만 달러) 공여
- 2007년 의전차량 3대(그랜저) 공여

□ 기술협력

- 1995년 전문가 1명 파견, 연수생 2명(수산양식 과정) 초청
- 2009.1. 환경전문가 Nimal Jivan Shah 박사 한국교류재단 초청 및 지식 교류
- 2009.6. 세이셸수산공사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연수생 1명 초청
- 2009.6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 재외동포 : 5명 (2012년)

마. 참고

- 주세이셸 한국명예영사 : Mr. Konrad Benoiton
 - 전화: (248) 429 5284
 - 휴대전화: (248) 252 6867
- 주한 세이셸 명예영사 : 정동창(Jeong Dong Chang) 명예영사
 - 전화: (02) 508-3900
 - 팩스: (02) 508-3255
 - 홈페이지: www.visitseychelles.co.kr.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정책

- 2011년 5월, James Michel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임기는 7월부터 시작), 이에 따라 전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광산업 육성, 경제개혁 정책 등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이셸은 인구 9만명 이하의 소국으로 제조업 등의 기간 산업 발전이 어려움에 따라 관광 산업 육성이 자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다.
- 자국 기간 산업의 미비로 국가 세수가 부족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이 어려운 관계로 2009년 IMF로부터 구제금융(bail out)을 지원받은 바 있다. 2011년 7월, IMF로부터 구제금융 운영 내역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나. 최근 경제동향

-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5.4%이며, 2011년 경제성장률은 약 4.9%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을 추동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늘어나고 있는 관광산업의 성장 및 Air Seychelles(국영)의 경영 흑자이다.
- 현재도 공공기관이 최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4만 3천여 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3만 3천여 명이 공공분야에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재정지출 확대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감소한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2013년 경제전망

- 세이셸 정부는 연임 대통령 2년째에 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 2016년까지 정치, 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예견되기는 하나 EIU는 2013년 GDP성장률이 3.8%대로 2012년 3.5%보다 0.3%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물가도 2012년 값자기 치솟은 유가와 현지화 루피의 약세로 인해 2011년 2.6에서 2012년 7.2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으나 2013년에는 VAT등의 신규 도입으로 2013-4년사이에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주요 산업 동향

1) 전체동향

세이셸은 전체 GDP가 농업 2.1%, 제조/건설업 20.2%, 관광산업/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77.7%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산업 소개

□ 관광

관광산업은 세이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이나 경쟁국인 모리셔스에 비해 현지화의 고평가에 의한 가격상승, 낮은 서비스 수준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약한 편이다. 2011년에는 총 19만명 수준이었으며, 유럽 관광객인 총 관광객의 74%를 차지하는 유럽인 선호 관광지이다.

세이셸 관광객 유치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관광객수(천명)		157.5	174.5	194.5
교통수단	항공	155.5	173.5	193.5
	배	2.1	1.1	1
지역별 (%)	유럽	77.4	75.4	73.8
	아프리카	11.8	12.8	12.6
	아시아	7.4	8.9	10.6
	오세아니아	0.5	0.6	0.6
	북미	2.9	2.3	2.4

자료: Seychelles in Figures 2012

□ 농수산

농업 비중이 GDP의 2.1%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며, 야자열매(copra), 차(tea), 계피(cinnamon bark) 등이 주요 농산품이다.

도서국가로서 수산 가공업의 비중이 20% 이상이며, 세이셸 제 2의 외화수입원으로서 2011년도에 2.42억 달러의 참치통조림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생산은 224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세이셸의 빅토리아에 소재한 The Indian Ocean Tuna (IOT)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제조 공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약 3만톤의 참치를 프로세싱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40%, Marin Brands사가 60%의 지분을 소유).

2004.9월 EU와의 새로운 어업협정 서명으로 인한 조업허가 선박수의 증가로 인허가 수입이 증가 중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 세이셸은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이하 COMESA)의 회원국으로 COMESA는 세계적인 경제통합 움직임(EU, NAFTA, ASEAN등)에 의해 발달하게 되었다.
- 역내 생산력 증대, 관세장벽 철폐, 공동대외관세 채택 등을 목적으로 하고, 1999.5.20~21일 나이로비에서 COMESA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00.10.31일 20개 회원국 간 COMESA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규모
 - 총인구 및 면적: 약 4억만 명, 12.88백만 평방km
 - 총 GDP 규모: U\$3,600억
 - 주요 지하자원: U\$239.7억(추정치)
 - COMESA 수입(인산염(3000억 M/T), 석유(1050억톤), 상당량의 우라늄, 니켈, 구리, 코발트 매장(금, 다이아몬드, 백금, 크롬, 망간의 경우 전세계생산량의 대부분 차지)
- 회원국(20개국)
 - 앙골라, 브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0개국

나.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SADC)

-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도로 낙후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구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회원국간에는 무관세 교역이 진행되고 있다.
- 회원국
 -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14개국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임 >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436.1	432.0	400.2	495.1	514.7
수입	839.0	733.1	736.8	877.2	881.5

자료: EIU 세이셸 국가보고서 2012. 4 분기.

- 주요 수출품(2011년)
 - 주요 수출품은 통조림 참치(2억 1,500만 달러) 등의 수산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업이 주요 산업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석유제품을 재수출하기도 한다.
- 주요 수입품(2011년)
 - 전반적 제조업 기반이 약한 관계로 기계류 및 운송장비(2억 2,500만 달러), 공산품, 식료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산물 수입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주요 교역 상대국
 - 수출 :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11년 기준 프랑스(38.8%), 미국(32.3%), 일본(14.7%), 남아공 (2.3%) 이다.

세이셸 주요 수출 대상국 현황(2011년)

순위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비중(%)
1	프랑스	38.8
2	미국	32.3
3	일본	14.7
4	남아공	2.3
	기타	11.9

자료: EIU 2012. 6 월호.

- 수입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아랍에미레이트(32.6%), 스페인(10.3%), 남아공(6.8%) 등 이다.

세이셸 주요 수입 대상국 현황(2011년 현재)

순위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비중(%)
1	아랍에미레이트	32.6
2	스페인	10.3
3	남아공	6.8
4	프랑스	5.8
5	싱가포르	5.8
	기타	38.7

자료: Seychelles in Figures 2012

1) 수출

- 도서국가인 관계로 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이며, 주요 수출 제품은 참치 통조림 등 수산가공물과 새우 등 수산물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다. 2011년 기준, 전체 수출액 4억 9,510만 달러 중 참치통조림의 수출 비중이 2억1,500만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수산물, 새우 등의 수산물 제품 수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세이셸 주요 수출품목 현황(2011년 현재)

(단위: U\$ 백만)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1	참치통조림	242.4
2	어육 (사료용)	7.4
3	기타 수산물 (냉동제품 포함)	2.2
	기타	21.7

(자료: Seychelles in Figures 2012)

2) 수입

- 제조업 및 농업 미발전으로 인해 운송장비, 기계류, 가축류, 식품류를 중점 수입하고 있다. 2011년 총 수입액 8억 7,720만 달러 중 해당 제품군의 비중이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이셸 주요 수입품목 현황(2011년 현재)

(단위: U\$ 백만)

순위	수입품목	수입액
1	기계/운송장비	229
2	식품/가축	199
3	공산품	197
	기타	409

자료: Seychelles in Figures 2012

나. 무역수지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8년에는 2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적도 있으며, 2009년 수입 축소 노력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9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인위적 축소에 한계가 있어 2010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다시 2억 2,500만 달러 이상 규모로 증가, 2011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총 2억 3,800만 달러 규모나 되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세이셸의 대 한국 수출입 추이(2008~2012.11월)

(단위: US\$ 천)

연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무역수지
2012.11월	1,828	25,810	-23,982
2011	855	18,331	-17,476
2010	2,957	13,070	-10,113
2009	2,514	9,754	-7,240
2008	2,280	9,838	-7,558

자료: KITA

- 세이셸의 대 한국 교역규모는 2012년 11월 기준 대 한국 수출 US\$ 183만, 수입 US\$ 2,398만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대 한국 수출규모가 이전 기간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 한국 수입 규모 역시 증가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관계로,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대 한국 수출액과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여 대 세이셸 무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이셸의 대 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2012.11월)

(단위: US\$ 천)

No	대 한국 수입		대 한국 수출	
	품목명	수출규모	품목명	수입규모
	총계	25,810	총계	1,828
1	아연도강판	6,551	참치	681
2	승용차	5,523	어육	550
3	발전기	5,220	기타어류	524
4	기타어류	1,796	기타플라스틱제품	51
5	철구조물	1,366	무선통신기기부품	15
6	화물자동차	1,073	기타철강금속제품	3
7	기타섬유제품	757	기타임산부산물	1
8	운반하역기계	733	기타산동물	1
9	변압기	347	난방및전열기기부품	1
10	공기조절기	333	기타섬유제품	0

자료: KITA

- 세이셸의 대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은 참치(68만 달러)이며, 어육(55만 달러), 기타 어류 등도 일부 수출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부터는 강판 (655만 달러), 자동차 (662만 달러)등을 중점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등록 비중이 8%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한국과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나, 대기업 전자 제품(삼성, LG)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의 경우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에 비해 한국 자동차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해당 내륙 국가들의 한국 브랜드 자동차 등록비중이 5% 이하 수준인데 반해 세이셸의 한국 브랜드 자동차 등록비중은 약 8% 수준이다.

다. 유망상품

한국의 강판, 케이블, 플라스틱 제품 등이 연간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Michel 대통령이 임기중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호텔, 관광지 개발을 확대할 계획을 준비중인 관계로, 향후 건설자재 및 장비,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 항정신성 의약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기타 특별한 수입규제제도는 없다..

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총기류 등 무기류, 오존훼손물질, 유전자 변형품, 뼈, 꿀, 상아, 비토종의 어류 및 번식용란(卵), 항정신성 약물 등은 엄격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1년 12월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사례는 없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5. 관세제도

- 평균 관세율은 25% 수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산업 미발전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기계 등의 관세율은 15~20%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 식품, 화학제품, 기계, 섬유 및 의류, 수송기계 및 건축자재 등 주요 제품들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소분류	관세
식품류	일반 식품류	25
	유제품	25
	쌀	25
	종자류(씨)	10
	식용류	10
	설탕류	15
화학제품	원료들	0
	페인트류	25
	필름류	10
기계류(전자제품)	공기청소기	15
	냉장고	25
	음식, 음료 제조	0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25
	일반의류	25
	가정용 리넨	25
	가발용 원사	0
교통, 수송	기차	5
	승용차	25
	자동차 부속류	15
건축자재	타일류	15
	세라믹 제품	25
	유리제품	15
	제지류	25
	철강제품	0
	아연판	10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임>

6. 주요인증제도

세이셸 표준청에서 전반적인 품질인증제도를 전담하고 있다.

- 참고 웹페이지
 - www.sbs.sc
-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Laboratory Testing
 - Standard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Standards Information Resource Centre
 - Sale of Kenya and foreign Standards
 - Product certification(Issuance of the Diamond Mark of Quality)
 - Handling of Consumer Complaints
 - Calibra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 Maintenance of Standards of Measurement
 - Quality Inspection of Imports at Ports of Entry
 - ISO 9000 Certification
 - ISO 14000 Certification
 - Training Programmes and Technical advice
- 표준청 기준 미달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자 또는 수출자 비용에 근거하여 환송 조치 된다.
- 또한, 세이셸은 국제표준기구(ISO) 회원국으로서 국제 표준기구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7. 지식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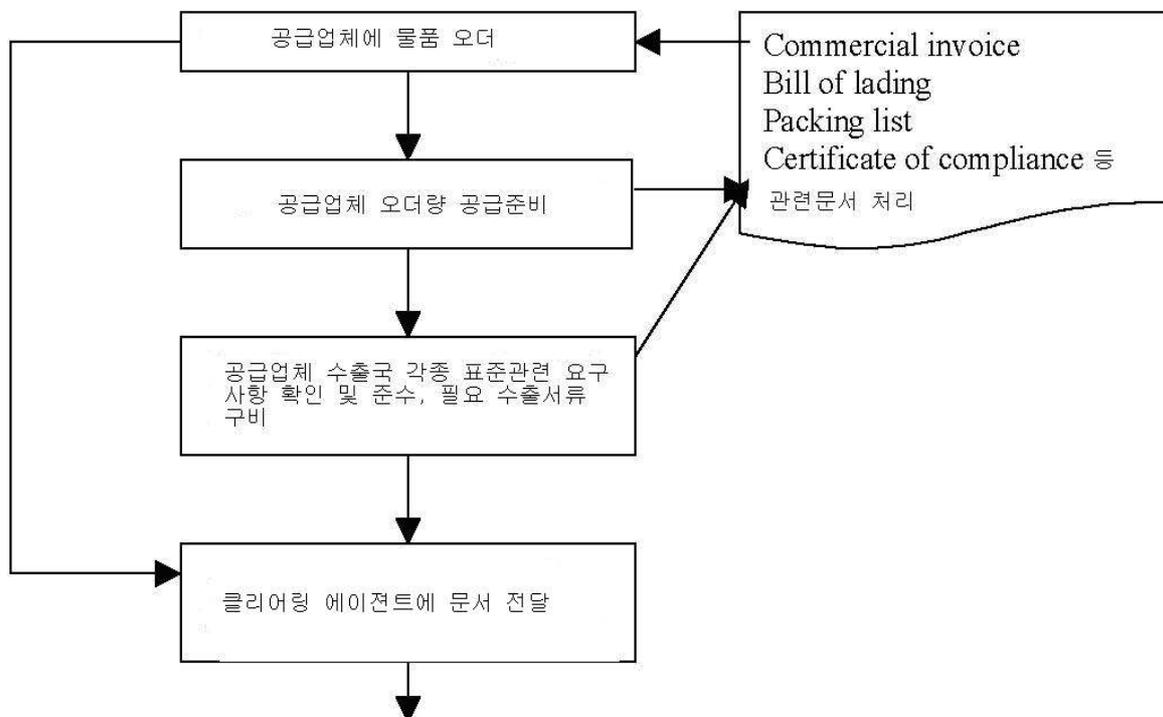
세이셸이 1999년도 12월 16에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에 가입했고 2000년 3월 16일 동
협약이 발효된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8. 통관/운송

가. 주요 통관절차 개요

통관절차 개요



수입 이전 절차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무역 자격증 (Trade License) 확보	무역산업부	Licence
단계 2	필요 시 수입허가증 확보	세이셸 관세청	Licence
단계 3	음식물, 의약품, 화학관련제품은 수입 허가증 확보	항만검역소 세이셸 식약청	Permit
단계 4	농산물의 경우, 식물수입허가증 확보 및 식물 생태 정보(phytosanitary)를 수출업자를 통해 증빙	세이셸 보건부	Permit Phytosanitary requirements
단계 5	표준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수출업자에게 전달	세이셸 표준청	Standardspecification
단계 6	수입품에 대한 제품명, 품질, 스펙, 수량들을 문서화	수입업체	Specifications
단계 7	수입품에 대한 금수조치, 관세혜택, 덤핑 관세부여 여부 확인	세이셸 관세청	2nd schedule of the EA Customs Management Act
단계 8	수입품에 대한 금액 확인	수입업체	Costing schedule
단계 9	수입품에 대한 재정 조달	수입업체/은행	Funds are available
단계 10	기타 거래관련 상담	거래 은행	Financial advice

수입품 도착 전

순서	주요 사항	담당자	관련서류
단계 1	선적서류 구비(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Airway bill, Certificate of conformity)	수입자	
단계 2	통관 에이전트 선정	수입자	
단계 3	통관 에이전트 통관관련 비용 수입자에 통보	통관 에이전트	
단계 4	통관 에이전트 운송업체 지정	운송업체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관련서류 세관에 처리	세이셸 관세청	
단계 6	품질검사 관련 서류 통관 에이전트에 전달. 에이전트 표준청으로부터 승인 획득	세이셸 표준청	
단계 7	통관 에이전트는 필요 시 항만 보건소에서 승인 획득		

수입품 도착 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세관에서 수입품 확인	세이셸 관세청	
단계 2	통관허가서 (Release order) 발행	세이셸 관세청	
단계 3	품질 표준검사 및 확인증 발행	세이셸 표준청	
단계 4	항만세 지불 후 수입품 통관 에이전트에 인수	세이셸 항만청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수입품 운송	운송업체	
단계 6	수입자 인수		

나. 운송 및 운송비용**1) 무역항 및 공항 개황****□ 국제공항**

세이셸의 국제공항은 수도 Victoria(마헤섬 동북부)에 소재한 세이셸 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그러나 여객운송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운송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한국에서 세이셸을 방문할 경우, 인천-도하-세이셸 (카타르항공), 인천-두바이-세이셸(에미레이트 항공), 인천-아부다비-세이셸 (에티하드 항공) 등 중동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유리하다.

□ 국제항구

국제 항구로는 역시 수도 Victoria에 위치한 Victoria 항구가 있다. Seychelles Port Authority에서 항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물동량은 2010년 현재 약 150만톤 수준의 소형 항구이다. 한국에서 해상 운송시 약 5주가 소요되며, 해상 운송 비용은 약 USD 3,000 수준이다.

2) 내륙운송비용

내륙 운송비용

육로교통	20 ft container	40 ft container
Victoria - Mahe섬 (50km 당)	U\$ 900-1000	U\$ 1,500 -2,000

주: 2012년 기준

자료: 유관업체 문의

내륙운송비용은 50km당 20ft 기준 USD 800-900, 40ft 컨테이너 기준 USD 1,200-1,300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 세이셸은 인구수가 9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도서 국가로서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인근 인도양 도서국인 모리셔스(2011년 150만 추정), 코모로(2011년 80만 추정), 마다가스카르(2011년 2,150만 추정) 중 최소 인구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 규모가 적어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에서 투자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중 정부의 투명성과 행정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World Bank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창업 환경 순위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세이셸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Doing Business 순위

국가명	전세계 순위 (2012년 순위)
모리셔스	19 (23)
남아공	39 (35)
세이셸	74 (103)
우간다	120 (123)
케냐	121 (109)
탄자니아	134 (127)
코모로	158 (157)

자료: Doing Business 2013

- 상기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이셸은 2012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체 창업환경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근 인도양 도서국인 모리셔스(19위)나 남아공(39위)에 비해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코모로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 Doing Business 순위는 창업과 관련한 각종 세부 지표들을 종합하여 책정되는데 세부 지표 내용은 “사업개시(Starting Business)”, “건설인가 획득(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전력 이용(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획득(Getting Credit)”, “조세 납부(Paying Taxes)”, “대외 교역환경(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실행(Enforcing Contracts)” 등이다. 2012년 세이셸의 해당 지표에 대한 각각의 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세이셸 각 지표별 순위

연번	지표명	순위
1	사업개시(Starting Business)	117
2	건설인가 획득(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57
3	전력 이용(Getting Electricity)	144
4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66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167
6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70
7	조세 납부(Paying Taxes)	20
8	대외 교역환경(Trading Across Borders)	33
9	계약 실행(Enforcing Contracts)	83

- 지표별로 볼 때 건설인가 획득(57위), 재산권 등록(66위), 투자자보호(70위), 조세납부(20위), 대외교역환경(33위), 계약 실행(83위) 분야에서 중위권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업개시(117위), 전력이용(144위), 신용획득(167위)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나. 주요 투자 유치 정책

- 세이셸은 협소한 시장 규모에 따른 투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신속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법인세율이 1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산업분야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 투자 장단점

1) 투자의 장점

-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신속히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 아프리카 국가중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이브라힘 재단은 연례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및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하여 이브라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0년 세이셸은 아프리카 국가 53개국중 모리셔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최초 발표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www.moibrahimfoundation.org 참조요망).
- 해당 지수는 인프라, 정부행정, 치안, 법치, 부패, 국가안보, 인권, 교육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루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최고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도로, 교통 분야의 인프라가 비교적 발전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외에도 정부의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하고, 도서국인 관계로 대인근 지역(중동, 인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해상 물류 수송 인프라가 강한 것이 투자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2) 투자의 단점

- 인구 규모가 9만명 이하로 매우 적고, 도서국가인 관계로 시장 규모가 협소한 것이 큰 단점이다. 또한 관광, 수산업이 중점 산업이며, 제조업이 미비한 관계로 적합한 산업을 발굴하는 것에 애로가 있다.
- 또한, 전력 인프라가 발달해있지 않아 산업용 전력 이용에 애로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Doing Business에서는 세이셸의 전력이용 순위를 조사대상 183개국 중 151위로 랭크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대륙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순위로 전력 관련 인프라의 문제점은 해결을 요한다.

□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 관광업 이외의 외국인 투자가 적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비용-이익의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다. 이에, 투자진출 결정시 반드시 현지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확보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법인 등록 및 사업이 시작되면 이후의 절차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사업 시작 이전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10단계 이상으로 비교적 다수인 편이다. 또한 신용 거래 이용이 어려우며, 통신 인프라 발전이 동아프리카 대륙국가에 비해 낙후된 편으로 원활한 통신에 애로가 큰 편이다.
- 또한,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 정보 등의 축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 관련 긴요 정보임에도 정보 획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외에도 원주민의 텃세가 심한 점도 유의해야할 점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외국기업들의 진출은 주로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호텔/리조트 분야는 Banyan Tree, Hilton, Coral Strand, Li-Al-Do Maison(이상 Mahe 섬), Constance Lemuria Resort(Praslin섬) 등의 고급 호텔을 비롯, 중저가 숙박 시설에까지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들 호텔/리조트 분야에 중점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와 인근국인 인도, 남아공 등이 다수의 투자를 기록하고 있다.
- 또한 관광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외국 여행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 규모를 증대시키고 있다.
- 기타 분야의 경우, 수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남아공 기업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Toshiba사가 건설 엔지니어링사를 설립하였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3. 우리기업 투자동향

2012년 12월말까지 한국기업의 대 세이셸 투자 사례는 없다(신고 기준).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 제도 개요

- 세이셸은 투자청을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각종 자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 등의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세이셸 투자청(Seychells Investment Bureau. www.sib.gov.sc)이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설립되었으며,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info@sib.gov.sc로 문의할 수 있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5. 진출형태별 절차

세이셸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모든 진출 형태별로 동일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1)사업양해각서(Memorandum) 제출, (2) 사업등록, (3) 영리 직업 허가, (4) 사무실 등 부동산 임대, (5)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취득, (6) 직업상 안전 및 보건 검사, (7) 인가 취득, (8) 사회보장기금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www.sib.gov.sc 참조)

(1) 사업양해각서 제출

- 세이셸 투자청에 사업양해각서(Memorandum)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세이셸 투자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해각서에는 사업개요, 유동자산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사업등록

- 사업승인 취득 이후 유관 정부부처의 Registrar에게 사업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영리 직업허가(Gainful Occupation Permit, GOP. 워크퍼밋과 유사한 개념) 신청

- 이민국(Immigration Division)에 영리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세이셸 투자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소 근무시작 10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시 600 세이셸 루피가 소요된다)

(4) 사무실 임대 및 리스

- 정부로부터 사무실이나 토지의 임대를 원한다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에 임대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역시 세이셸 투자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 건설허가 취득

- 건설을 동반한 사업일 경우, 국가개발부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의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절차 취득이 필수이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을 진행할 수 없다.

(6) 직업상 안전 및 보건검사(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ion) 실시

- 식품업 및 화학물질 관련 업종의 경우, 직원들에 대해 직업상 안전 및 보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인가(License) 취득

- 세이셸 인가청(Seychelles Licensing Authority)으로 부터 사업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8) 사회보장기금 등록

- 사업개시 7일 내에 세이셸 재무부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해당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6. 투자입지여건

-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국으로 접경국이 없고, 국내인구 규모도 매우 적어 투자시장성 및 수익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또한 수산업 및 관광업 이외에 발전한 산업이 미비한 상황이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중동, 인도, 동부 아프리카와 인접하고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해상운송이 발달한 관계로 물류 운송이 용이한 편이다.
- 또한 유럽에 널리 알려진 관광휴양지로서 관광산업 분야에는 상당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도서인 마해섬, 유명 휴양지인 프라슬린 섬 등의 리조트 개발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 분야 투자를 검토해볼 만 하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7. 노무관리

- 전술한 이브라힘 지수는 세이셸의 인력수준을 아프리카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노동생산성이 높다. 또한 유아사망을 역시 아프리카 53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최상위권인 USD 10,000(2012년 예상치) 수준이며, 임금 수준 역시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식민모국인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노동법이 엄격히 적용된다. 전 근로자가 사회보장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업종별 근로시간은 호텔업 주 48시간, 건설업 주 45시간, 은행 주 40시간, 공공서비스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8. 조세제도

- 세계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Doing Business” 사이트에 의하면 세이셸은 평균 세율(소득세, 법인세, 기타 세율 포함)이 32.2%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53번째로 낮은 세율을 기록하고 있다(www.doingbusiness.org 참고).
- 평균세율 32.2% 중 법인세율은 19.8%, 근로소득세율은 11.5%, 기타 조세율은 0.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은 15% 수준으로 4%포인트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외환 이동에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외환 송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단, 타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액 이상(U\$ 30,000)의 외환 송금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큰 애로사항은 아니다.

- 단, 국내 제조기업과는 관계없는 로열티, 라이선스 및 특허료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사전 준비은행의 승인을 요한다. 제조업과 관련된 로열티 등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밖에 관리비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경상계정지불은 판매액, 이익, 구매액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서와 함께 송금할 수 있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V. Business 참고 정보

1. 시장 특성

세이셸의 결제 관행은 일반적으로 USANCE L/C 60~90일 정도이나 은행 규모가 소규모인 관계로 L/C개설 시 우량은행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은행의 지점이외 현지은행 발행 L/C는 제3국 은행의 CONFIRM을 받는 것이 좋다 (상기 외국계 은행이라도 초기 거래시에는 Confirmed L/C거래가 안전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L/C at sight를 요구할 수 있으나 화학 원료 등의 경우 대부분이 DA, DP 거래가 일반적이는데, 이는 현지 은행금리가 20%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NDER VALUE 등도 성행하고 있고 신변 장신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두바이 등을 경유, 밀수품이 반입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기업과의 비즈니스는 통신 장애 및 비즈니스 관행상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하며, 성급한 속단은 금물이다. 현지 상권의 대부분(75~80%)을 인도상인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무역업무에 상당한 수완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상담자세가 요구된다. 일례로 현지 수입상들의 대부분이 두바이, 유럽, 인도 및 아시아 국가(중국, 대만, 일본)등과의 거래에 친숙하며, 두바이로부터는 수시 연락 및 결제하는 요령에 능란하다. 자동차 부품이나 석유류의 경우 상담 중에도 직접 두바이 공급업체에 가격을 요청하여 상담 시 가격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 거래 시 명심해두어야 할 정보

1) 제조업체, 바이어 및 딜러구분이 불명확

열악한 제조시설 기반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수입과 유통을 겸하고 있어 제조업체, 바이어 및 딜러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가격경쟁력 중심 시장이면서 최종 소비가는 고가임

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을 주된 거래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높은 관세, 부가세(18%) 및 과다한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편이다.

3) 인도상인이 시장 지배

역사적으로 영국 식민지 지배시대에 인력으로 유입된 인도인들이 상술과 근면성을 토대로 동아프리카 상권을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인도인 기업 오너는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에 가족이나 대리인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나.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

1) 가격비교에 당하지 말 것

현지 바이어, 특히 인도인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제품 구매행위 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업체로부터 견적을 징구(徵求) 후 또 다른 한국업체로부터 견적을 계속 비교해 구매의사를 결정한다.

2) 입찰 참가 시 에이전트와 확실한 계약관계 유지

대형 조달시장 참가 시 수주활동에 에이전트의 역할이 필수적이거나, 외국 공급업체들과 현지 에이전트 간에 법정시비가 많아 에이전트 계약 시 양측 권리 및 의무관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3) 급할수록 두들겨 볼 것

급한 오더일수록 함정이 많아 첫 거래인 경우 위험성이 높은 외상거래(D/A)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정이 급한 바이어 측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다. 기타 유의사항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의사결정이 늦고 초기 거래 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기업 문화와는 차이가 큰 편인데, 특히 세이셸과 같은 소규모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생활환경지수 등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출 거래 관행만큼은 일반적인 아프리카 국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이셸 뿐만 아니라 타 인도양 도서국가(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등)는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판단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2. 물가정보

-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물가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관광 등을 위한 방문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주요 물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세이셸 명예영사관 웹사이트(www.visitseychelles.co.kr 참조))

세이셸 주요 물가정보

(단위: SR)

내역	물가수준	내역	물가수준
최고경영자 연봉	24,413~53,707	유류세	디젤: 19.00 휘발유: 15.00
숙련노동자	8,248~12,371	버스요금	5(전 노선)
수도요금	14~18SR/KL	택시요금	기본요금 25(1 km) 추가 1km당 23
전기요금	9.16~15.87/KVA	사무실	20m ² 당 약 5,000

주: 환율: USD 1 = SRP 13.74 (2012.12월)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3. 바이어 발굴

□ 산업상공회의소

세이셸 산업상공회의소(Seychelle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ww.virtualseychelles.sc)를 통해 주요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Business Directory를 공개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다.

□ 코트라 홈페이지인 www.kotra.or.kr의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찾기 서비스 이용

코트라 본사를 통해서 동 조사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행 서비스에는 크게 "바이어 발굴"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연락처 확인"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등이 있는데, "바이어 발굴" 서비스는 케냐의 유력 관심 바이어 발굴 시 이용하며, 맞춤형 시장조사는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 동향/유통 등 항목별로 세부 시장조사가 가능하여 특정 관심품목에 대한 바이어보다는 시장 전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동 바이어 발굴 조사 서비스 신청은 (1) 코트라 본사 홈페이지 (www.kotra.or.kr)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 본사 강선영(02-3460-7737), 최정원(02-3460-7388), 박진태 (02-3460-7383) 담당자들을 접촉하면 된다.

코트라 홈페이지 해외시장 서비스 신청 안내화면

사업안내 HOME > 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 해외시장 서비스 > 해외시장 서비스 사업안내

[E-Mail 보내기](#) [인쇄하기](#)

■ 해외시장 서비스(조사)

• kotra 전 세계 해외무역관(78개국 113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 찾기,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유형 및 수수료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수수료(VAT 포함)
바이어찾기	수출 희망 품목의 관심 바이어 발굴	150,000원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10,000원/항목
바이어 연락처 확인	해외바이어의 실제 존재여부, Contact Point 등 조사	무료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수입 희망 품목의 잠재 공급선 발굴	220,000원

■ 절차

```

    graph LR
      A[고객 인터넷 신청] --> B[무역관 조사가능 여부 검토 (1주 기간소요)]
      B --> C[본사 조사가능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
      C --> D[고객 수수료 입금]
      D --> E[무역관 및 본사 조사 완료 및 결과 보고서 송부 (3주 기간소요)]
      E --> F[고객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 문의처

- 서울(바이어찾기/바이어연락처확인), 대전, 충남, 제주-강선영(02-3460-7737)
- 서울(맞춤형시장조사/원부자재공급선조사), 경기-최정원(02-3460-7388)
- 그 외 지역 - 박진태 (02-3460-7383)

■ 신청하기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연락처 확인](#)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수출대금미결제조사 \(K/S, F/E 전용서비스\)](#)

다만, 세이셸은 무역관 주재지역이 아닌 관계로 조사가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인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영국 식민지였던 관계로 인도계 상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의사결정이 늦고 초기 거래 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기업 문화와는 차이가 큰 편인데, 특히 세이셸과 같은 소규모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삶의 질, 생활환경지수 등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출 거래 관행만큼은 일반적인 아프리카 국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이셸 뿐만 아니라 타 인도양 도서국가(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등)는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판단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 및 수산업 이외의 유망 산업이 부족하다.
- 또한 중국제품의 현지 모조품 또는 기준 이하 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세이셸 정부도 대비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외의 타국 공급선 발굴을 위해 정보망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업종간 전문비즈니스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대기업들이 수입유통을 과점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관계로 인도계 상권의 텃세가 매우 심해 수입유통업 분야의 진출이 쉽지 않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는 없다.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7. 이주정착 가이드

세이셸 거주를 위해서는 비자는 필요없으나, 각종 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해당 허가증은 방문자 허가증, 영리직업 허가증, 주거허가증, 가족주거 허가증 등의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거허가증은 이민이 금지되지 않고, 세이셸에 가족이나 친족관계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거나 세이셸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또한 주거 허가증 소지자는 1년 중 최소 5일 이상을 세이셸에 머물러야 하며(미 체류시 원칙적으로 효력 취소 가능), 1개월 이상 거주시 세이셸 은행을 통해 10만 루피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허가증 보유시 세이셸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도 함께 등재될 수 있다.

(이상 주한세이셸명예영사관 정보 요약)

< 2012.12 월 확인 기준 정보 >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 열대성 기후로 평균 기온이 27°C 수준이다. 4월이 가장 무더우며, 7~8월이 가장 선선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 GMT +4로 한국의 정오가 세이셸의 오전 7시이다. 근무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08:00~17:00이다.
- 은행: 통상 09:00~16:00(토요일 오전 09:00~13:00, 일요일 휴무)
- 우체국: 통상 09:00~17:00(토요일 오전 09:00~13:00, 일요일 휴무)
- 식당: 통상 12:00~22:00(토·일요일 동일)
- 상점: 통상 10:00~17:00(토요일은 평일과 동일, 일요일 휴무)

다. 주요단위

1) 도량형

길이는 미터법(m), 야드법(yd) 혼용, 면적은 주로 피트(feet)법, 유체량은 리터법, 무게는 Kg을 상용하고 있다.

2) 사무용품

복사 용지는 A4, A3등 유럽 사양을, 파일용 바인더도 3공 바인더 대신 2공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다.

3) 전기규격

220/240V, 50Hz, 삼상이며 전압이 불안정하여 가전제품 등 모터가 포함된 제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주로 고가 가전제품은 Surge Protector나 컴퓨터용 전압안정기 또는 UPS를 사용한다. 면도기의 경우 일부 호텔에서 110/220V 겸용 콘센트가 있기도 하다. 전원 플러그는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출국 전 여행자용 다목적 콘센트를 구입해야 한다. (영국과 유사)

라. 출입국/비자

- 한국과 세이셸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 출입국시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며,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 달리 불합리한 통관 수속 등의 비중도 크게 적다. 단, 입국 신고 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샘플이나 상업용 물품에 대해 서는 간혹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샘플임을 입증하면 통과 시 큰 문제가 없으나 간혹 관세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 방송촬영용 장비 등의 경우, 엄격한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관광산업이 발전한 국가만큼 수려한 경관을 촬영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 무단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조치를 요하고 있다.

마. 환율/환전

- 환율은 2012년 12월 USD 1 = SRs 13.74 수준이며, 시내 및 호텔에 환전소가 다수 운영중이므로, 환전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 단 호텔 환전소보다 시내 환전소가 더 높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바. 교통/통신

- 한국에서 입국시 에미레이트 항공(주4회) 및 카타르항공(매일)을 통한 입국 경로가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이다. 통신의 경우, Telkom사가 서비스하고 있으나 기간망의 부실로 인해 무선통신 및 인터넷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인천-세이셸 항공일정

항공사명	경유지	경유지	비행시간
에미레이트 항공	인천-두바이 (매일)	두바이-세이셸 (수.금.토.일)	10:10
카타르 항공	인천-도하 (매일)	도하-세이셸 (매일)	10:55
에티하드 항공	인천-아부다비 (수.금.일)	아부다비-세이셸 (월.수.금.토.일)	10:00

자료: 항공사별 홈페이지

사. 호텔/식당

- 일일 숙박비 U\$ 1,000이상의 고급호텔부터 U\$ 100 수준의 저렴한 수준의 호텔까지 다양한 수준의 숙박 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인구 9만명 이하의 소국에 총 등록된 호텔 수는 300개가 넘는 수준으로 인구대비 숙박업소 수가 많은 편이다.
- Banyan Tree Seychelles Hotel, Berjaya Beau Resort, Hilton Hotel이 관광객들에게 주로 애용되고 있으며 1일 숙박비는 U\$ 700~2,000 수준의 높은 숙박료가 책정되어 있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없으며, 호텔 숙박비가 부담될 경우, USD 100 수준의 현지인 운영 Guest house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 관공서 관행

- 대륙에 소재한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관공서의 관행은 매우 투명하다. 법치와 제도에 의거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패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 단, 행정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 있지 않아 민원 및 기타 대 정부 행정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 공휴일

세이셸의 공휴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세이셸 공휴일 현황 (2013년)

일자	공휴일명	비고
1.1~2	New Year's Day	
4월중	Good Friday, Easter Monday	교회력에 따름
5.1	May Day	
6월중	Corpus Christi(그리스도 성체절)	부활절 다음 8번째 일요일
6.5	Liberation Day	
6.29	Independence Day	
8.15	Assumption of Mary	La Digue 지역 축제일
11.1	All Saint's Day(만성절)	성인 기념일
12.8	Immaculate Conception	
12.25	성탄절	

차. 여행 시 유의사항

-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안전한 편이나 2011년 5월 한국인의 장기 실종/사망 사건이 일어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수도의 경우에도 외진 곳이 많아서 단독 도보 이동은 자제가 요구된다.
- 외국인들만이 이동할 경우,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따라서 장기 체류 시에는 현지인 가이드를 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며, 아프리카 대륙과 달리 말라리아의 위험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해변에 서식하고 있는 지네, 뱀, 거미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유의해야 하며, 맨발로 해변을 걷는 것은 자제를 요구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 주 케냐 한국 대사관
 - 세이셸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으며 주케냐 한국대사관이 세이셸을 경임하고 있다.
 - Tel: +254-222-0000
- 주 세이셸 한국 명예영사
 - Mr. Konrad Benoiton
 - Tel: +248 429 5284
- 주한 세이셸 명예영사: 정동창 명예영사
 - Tel: 02-737-3235
 -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관광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정동창 명예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세이셸 명예영사관 웹사이트(www.visitseychelles.co.kr)는 다수의 관련 기관 웹사이트가 링크되어 있고, 세이셸 관광을 위한 각종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세이셸에 관심이 있을 경우 필히 방문을 권유한다.

타. 관광명소

- 세이셸은 주 도서인 마헤섬 주변의 해안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이외에도 부속 도서인 프라슬린, 라디그 섬등의 해안 경관 역시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 마헤섬
 - 세이셸의 주 도서로서 수도 빅토리아가 소재하고 있다.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미술관도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수려한 해변이 펼쳐져 있다. 오염되지 않은 인도양 해수가 아름다운 곳이다.
- 프라슬린
 - 세이셸에서 두번째 큰 도서로서 만과 다양한 관상어가 서식하고 있다. 이 섬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발리디마이 국립공원이 있어, 독특한 야자나무를 볼 수 있다. 마헤섬에서 매일 항공편과 선박편이 있다.
- 라디그
 - 라디그는 프라슬린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강암 해변 경관이 유명하다. 라디그 섬 내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와 우마차이며, 대형 바다거북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현재 세이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회는 없다. 그러나 세이셸은 2020년, 국제 전시회인 EXPO 2020을 개최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재무부 등의 주관하에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http://news.shta.sc/nz-content/num028/general/item3.php> 참고)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세이셸 정부 포털: <http://www.egov.sc>
- 세이셸 중앙은행: <http://www.cbs.sc/>
- 세이셸 관광 홈페이지: <http://seychelles.travel/en/home/index.php>
- 세이셸 명예영사관: <http://www.visitseychelles.co.kr/>
- 세이셸 투자청: <http://www.sib.gov.sc>
- 세이셸 관광 정보 (한국어): <http://mauritiushclub.co.kr/index.asp>
- 세이셸 통계청: <http://www.nsb.gov.sc>
- 세이셸 네이션지 온라인: <http://www.nation.sc>
- 세이셸 관광진흥청: <http://www.seychelles.com>